

항구의 도시 구시로시(釧路市) - 푸른 습원을 고향으로 하는 학들의 춤

구시로시는 홋카이도 동부 태평양 연안에 있는 도시로 제지 공장 등이 다수 소재하는 공업도시이자 홋카이도 면적의 43%지역의 생활물자가 구시로항에 의존하고 있는 항만도시, 구시로 습원이나 아칸코 호수 등 국제적인 관광지를 보유한 관광도시입니다.

특히 항만과 관련해서는 2002년 8월에 부산과의 정기 컨테이너선이 취항되면서 극동지역이나 중국, 동남아시아 등 세계 각지로 이어지는 부산항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살려 구시로항은 일본 동북해도의 최대의 국제물류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항만의 특징을 살린 국제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미국의 스위트항

(Seward harbor, 1982년), 뉴올리언스항(New Orleans harbor, 1984년)과 자매항을 맺고 있고, 수산업을 기간산업으로 하는 인연으로 러시아의 페트로파블롭스크캅차츠키와 항만우호도시(1998년)를 맺고 있습니다.



[구시로시의 국제교류]

- 캐나다 버너비시(1965년, 자매도시)
- 러시아 사할린주 홀름스크(1975년, 자매도시)
- 러시아 페트로파블롭스크캅차츠키(1998년, 항만우호도시)
- 미국 스위트항(1982년, 자매항)
- 미국 뉴올리언스항(1984년, 자매항)
- 호주 헨터강 하구습지(1994년, 자매습지)

구시로시의 북쪽에는 일본 최대의 습지인 구시로 습원(釧路濕原)이 펼쳐집니다. 약 29,000ha의 넓이를 자랑하는 습원을 사행하여 구시로강이 흐르고 있으며, 강에는 수많은 어류가, 습원 일대에는 두루미나 에조시슴, 북방 여우 등의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계의 신비로움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시로 습원은 1967년에는 천년기념물로, 1980년에는 일본 최초로 랍사르조약 등록습지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987년에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보호, 보존되고 있습니다.



예부터 길조로 여겨지며 전래동화에도 등장하는 두루미(丹頂鶴, 단정학)는 일본을 대표하는 새이자 홋카이도를 상징하는 새입니다. 에도시대까지 전국 어디서나 그 우아한 자태를 볼 수 있었던 두루미는 메이지가 되어 개체수가 감소하면서 전혀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1924년, 10여 마리의 두루미가 구시로 습원에서 확인되자 지역 주민들의 노력으로 보호활동이 추진되어 1952년에는 나라의 특별천년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1972년, 멸종 위기에 처한 조류로 지정되어 극진한 보호책이 실시됨에 따라 그 수도 증가하여 현재는 약 400마리의 두루미가 구시로 습원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 두루미는 일본 외에 러시아 아무르강 유역과 중국 동북부에 1,500 마리 정도 서식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홋카이도 동부에서 텃새인 두루미를 1년 내내 볼 수 있습니다.

【구시로시의 이모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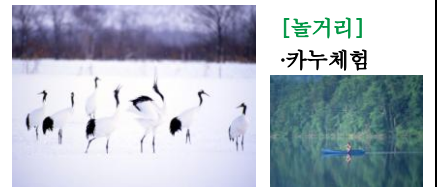
◇ 구시로시(釧路市)의 개요



- 면적: 1362.75km²
 - 인구: 약 18.7 만명(2009년)
 - 주요산업: 공업, 수산업, 관광업 등
 - 기후: 연평균 기온 6℃, 연평균 강수량 1045.2mm (아칸코호반은 3.7℃, 1207.3mm)
- 여름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여 습도가 평균적으로 높으나 7, 8월의 평균기온은 15~18℃정도. 겨울의 적설량은 홋카이도내 다른 지역에 비해 적고 맑은 날이 많아서 일조시간이 긴 편입니다.

[볼거리]

- 구시로시 두루미 자연공원
 - 아칸 국제 두루미센터 구루스
- 두루미의 생태계를 알기 쉽게 설명해 놓은 전시관과 두루미를 눈앞에서 관찰할 수 있는 야외 사육장 등이 있어 조류 관찰과 사진촬영에 좋습니다.



구시로강을 타고 습원 한 가운데로!

[먹을거리]

‘로바타야키’의 본고장은 구시로! 흔히 ‘일본 선술집’이라고 알려져 있는 로바타야키(炉端焼き)는 손님이 보는 앞에서 숯불로 어패류나 야채를 구워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음식점은 일본 미야기현 센다이시(宮城県仙台市)의 ‘로바타(炉ばた)’라는 이름의 음식점에서 야채를 이로리(화로)에서 구운데서 시작되었는데, 그 음식점에서 배운 제자 3명이 각자 오사카, 홋카이도 구시로, 동북지방인 아오모리현 등에 같은 형태의 가게를 내면서 그 형태가 발전했다고 합니다. 제자 중 홋카이도 구시로에 ‘로바타’라는 같은 이름의 가게를 낸 제자는 야채뿐만 아니라 구시로항에서 나는 신선한 어패류도 구웠는데, 이 형태가 전국으로 퍼져 쇼와 40년대에는 구시로와 같은 로바타야키점이 전국에 1 만점이 넘게 존재했다고 합니다.



아칸코(阿寒湖) 호수의 신비 - 아이누 문화와 자연이 조화를 이룬 휴양지

구시로시의 아칸초(阿寒町)에는 아이누 문화가 숨쉬고 있습니다. 아이누는 일본과 러시아에 걸친 북방선주민족으로 역사적으로는 홋카이도와 사할린을 생활권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누들은 일본 본토 사람들과 교역을 하는 등 교류도 가졌으나 메이지(明治)정부의 정벌정책으로 토지를 점령당하고 말살정책, 동화정책 등을 거쳐 지금은 약 2만 5천명이 존재하리라 추정되며 아이누 문화를 보존,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홋카이도의 시라오이 (白老, 히라토리(平取), 아이누 코탄(마을)



아이누의 학춤

아칸(阿寒)은 아이누족이 큰 부락을 이루어 살던 지역으로 특히 아칸은 아름다운 자연과 온천 등의 휴양 시설이 아이누 문화와 조화를 이루어 국내외로부터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아칸관광협회: www.lake-akan.com



아칸코 호수



↑아이누 코탄에는 아이누의 생활양상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아칸코 호수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마리로모

홋카이도는 바다, 강, 고산지대와 같은 다양한 자연 환경이 야생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야생동물들의 생명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시레토코(知床)지역을 비롯한 도내의 6 개의 국립공원, 5 개의 국정공원, 12 개의 도립공원은 철저히 보호, 관리되고 있어, 수리부엉이나 흰꼬리수리 등 멸종의 위기에 있는 동물들의 귀중한 서식지, 월동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내에서는 멸종되었으리라 여겨졌던 두루미의 생태계도 재생, 보호되어 현재는 수백마리의 두루미가 텃새로 1년 내내 홋카이도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흰꼬리수리



특별천연기념물 두루미



천연기념물 까마딱다구리



천연기념물 에조 수리부엉이

‘아이누개’라 불리는 홋카이견(北海道犬) -천연기념물

사진 및 상세정보: (사)천연기념물홋카이도견보존회 www.dokenpo.com(일본어)

하얀 눈 위의 여우 발자국,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여우의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홋카이도의 풍경이며, 홋카이도는 사슴과 곰의 개체수도 많고 또 이들은 인명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사슴주의’, ‘곰출몰주의’와 같은 표지판도 있습니다.

홋카이도의 경계표식(Warning Signs)



動物注意



에조사슴



動物注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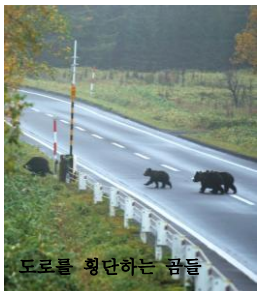


북방여우



여우 발자국

※ 홋카이도에서 렌트카로 여행하실 때는 특히 여우와 사슴에 주의하세요. 여우는 홋카이도의 도로에서 가장 흔하게 마주칠 수 있는 동물인데 자동차를 보면 깜짝 놀라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슴은 몸집이 크기 때문에 사고가 크게 날 위험성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도로를 횡단하는 곰들



馬横断注意



목장 주변에는 말의 횡단주의 표지판이!



リスに注意



에조다람쥐

→ 22~23cm 의 몸집에 꼬리 길이가 17~20cm 인 에조다람쥐는 홋카이도 전역의 삼림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같은 종의 동물이라도 추운 지역으로 갈수록 몸집이 커진다는 ‘베르그만의 법칙’대로 동쪽 다람쥐에 비해 몸집이 큰 에조다람쥐는 겨울잠을 자지 않기 때문에 자연이 풍부한 홋카이도에서는 거의 연중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에조’라는 이름이 붙는 동물들 ‘에조(蝦夷)’는 홋카이도를 일컫는 옛 표현으로 홋카이도의 동물 중에는 이 이름이 붙는 동물이 많습니다. (에조사슴, 에조다람쥐, 에조부엉이, 에조우는토끼 등) 하지만 이들은 엄밀히 말해 홋카이도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할린이나 시베리아 대륙, 북미 등에도 존재하지만 일본에서는 쓰가루해협(津軽海峡)을 기준으로 홋카이도에만 서식하는 종이기 때문에 이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牛横断注意



動物注意



← 개구리주의 에조우는토끼 ↑



← 2009년 홋카이도에서 개최된 전국건강복지축제(60세 이상의 교령자 올림픽, 일명 ‘연륙픽’)의 마스코트가 된 에조우는토끼 ‘웃상(うっさん)'